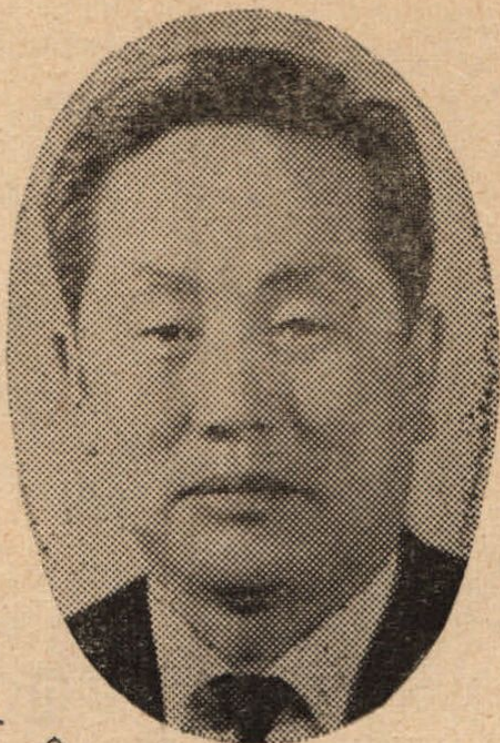


머

릿

말



조국이 부르는 사람

학교장 이 동 욱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이나 또는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것이 과거에도 있었겠고 지금도 있으며 또는 앞으로도 반복해서 일어나리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보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인류의 역사는 어떤 기준 위에서 흐르고 있는 것일까? 과연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정의는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인가? 과연 참되게 산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행복해진다고 믿어도 좋은 것인가? 우리는 연령에 관계없이 이런 일들을 생각하며 의문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경험도 쌓았고 또한 철학도서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방황하고 주저하며 의혹 속에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그들의 말에서 행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주위에서 진실을 찾아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맞아야 하는 사람들, 관계해야 하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진실을 찾아보기 힘들 때

사람들은 자연 자신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주위를 살피는 눈에 회색의 베일을 쓰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정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조국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자부하면서 도약의 七〇년대의 문턱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도 성장의 고동 소리가 전 강산에 메아리치고 있음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우리의 주위에 한번 눈을 돌릴 때 의혹과 실망을 다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참된 성장을 하고 있는가 하고.

금세기의 위대한 역사가 「토인비」는 말하기를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민족은 근면하고 정직하고 창의성 있는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민족을 중흥시키고 위대한 역사의 창조자가 되려고 할진대 성실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주위에서 성실을 회복하기 위한 비지판나는 수고가 우선 있어야 하겠습니다.

「막스 웨버」라는 학자는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성실성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동양 사람들의 성실성에는 정열이 없고 서구 사람들에게는 강렬한 정열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서구 사람들의 지배욕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였습니다.

표현이 무겁고 깊은 동양 사람들의 그 표현을 「막스 웨버」가 어느 정도 잘 관찰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생각해 봐도 동감이 가는 점이 있

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성에 정열을 더하여 활동적이면서 진실된 사람 또는 국민이 되어서 우리의 발판을 굳게 하고 나가서는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영리한 두뇌를 다각도로 계발하고 활용하여 체념이나 자기 포기에서 전진과 도약으로, 동면과 좌절에서 활동과 생산으로, 모방이 아니라 창작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압니다。

「푸라톤」은「모든 위대한 것은 아름다운 미치광이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지나친 표현일런진 몰라도 영웅적인 도취, 활동적인 정열이 우리의 성실성에 보태진다고 하면 우리가 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지난 十一月 九일 그 파란만장한 八〇년의 생애를 고요히 끝내고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전 대통령 「드·골」장군의 일생에는 교훈이 많았습니다。 그의 조국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 영광없는 프랑스를 생각할 수 없었던 그의 공생활에서나 사생활에서 우리는 너무도 위대했던 인간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영도력을 몇 마디로 표현한 타임지 기자는 「도의와 의지와 체모와 비존」에 산 인물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성실과 꿈이 그의 전 애국적인 생애를 지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영광된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의 교실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우리는 성실과 정열 그리고 창의를 찾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특히 인성의 벼들에게 함께 생각하고 권하고 싶은 말들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조국이 오늘도 부르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